상록탑

무수한 선택지에서 살아남기

김소연
편집부국장

> 자신을 믿고
> 스스로의 선택을
> 따라가길

샌드위치가 '간단한' 식사의 대명사였던 시대는 지났다. 식사 대용으로 먹기 위해 빵 사이에 대충 햄과 계란만을 넣는 것이 아니라 샌드위치 하나를 만들기 위해 많은 선택지가 주어진다. 처음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전문점에 갔을 때 당황스러웠다. 일단 샌드위치의 종류도 거의 열 가지가 넘었을 뿐만 아니라, 샌드위치를 정한 후에도 빵 종류부터 야채, 소스까지 끊임없는 선택지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네이버에 서브웨이를 검색하면 '메뉴 추천'이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완성될 정도다.

서브웨이뿐만이 아니라 일상은 선택의 연속이다. 무엇을 먹을지, 음식점에 가서는 어떤 메뉴를 시킬지, 음료로는 콜라를 시킬지 에이드를 시킬지, 후식으로는 무엇을 먹을지, 커피숍에 가서는 어떤 음료를 마실지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우리의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진지해진다. 취업을 할지, 창업을 할지, 대학원에 가 공부를 계속할지, 고시 공부를 할지 심오한 인생의 과정도 내가 오롯이 결정한다.

이렇게 선택할 것이 너무도 많은 상황 때문에 '햄릿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루거나 타인에게 결정을 맡겨버리는 성향을 의미하는 말이다. 햄릿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결정을 미루는 것이 버릇이 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신조어의 등장에 발맞춰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상품은 물론 정보까지 맞춤형으로 모아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나 선택지를 입력하면 나대신 결정해주는 '결정의 신(神)'과 같은 어플이 등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기계가 선택을 머뭇거리는 사람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결정의 주체는 남이나 기계가 아닌 자신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은 결국 후회를 가져올 뿐이다. 물론 타인의 충고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들의 충고를 바탕으로 내 문제를 결정하면 완전히 내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나 역시 친구들 추천을 받고 구매한 물건이 나에게는 맞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 얘기만 듣고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너무나 힘들었던 일인 적도 있다.

우리가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선택한 결정은 그 책임이 모두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 결정했다고 그들이 내 선택을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선택을 따른 경우 더 큰 불만족이 찾아올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졸업 연설에서 "자신의 선택을 따라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역시 주체적으로 나를 믿고 결정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

사설

대학-학생 갈등 조장하는 교육부 사업

최근 대학가에서는 교육부 사업 진행을 둘러싸고 대학 본부와 학생들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본교가 교육부의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평단사업)을 계기로 농성을 시작한지 40일이 됐고, 동국대 역시 평단사업을 두고 한 달 가까이 점거농성을 진행 중이다.

평단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 학기엔 프라임·코어 사업으로도 대학 본부와 학생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본교에서는 3월30일 본관에서 36시간동안 반대 농성이 이뤄졌고, 국민대에서는 총장실 앞 점거농성이 있었다. 숭실대와 인하대 등도 프라임·코어 사업을 두고 학생들의 반발이 커 진통을 앓기도 했다.

이렇게 최근 들어 대학본부와 학생들 간 갈등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학생 간 소통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는 정부가 예산지원을 빌미로 삼아 학교-학생 간 불통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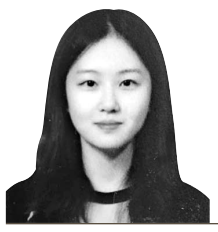
실제로 최근 교육부가 진행한 재정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 공고 일부터 마감일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다. 적어도 학교가 해당 사업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번 평단사업과 1학기 프라임 사업 모두 사업계획서 준비기간은 고작 1~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학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 각 대학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대내 홍보를 할 시간조차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평가요소에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항목을 제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대학으로선 정부의 '돈줄'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대학들의 재정적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머지않아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나 비전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토론을 하기 보다는 정부 사업 따기에 급급해 방향성을 잃고 학내 갈등에 빠져드는 것이 대학가의 현실이다.

대학이 발전해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를 기억한다면, 교육부는 현행 방식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최소한 어떤 사업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이것이 대학 전체의 비전과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할 시간적 여유는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무리하게 진행되는 재정지원사업은 더 많은 학내 분규를 불러올 것이다.

학생 칼럼

공감이 만든 제약



김혜린
국문·14

> 스스로를 틀 안에 가두는
> 공감의 이중성

인기있는 SNS인 페이스북에는 '좋아요'라는 기능이 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이 게시물이 좋아요'라고 표현하는 기능이지만, 요즘에는 '공감'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누군가 개개인의 일상이나 생각, 인간관계, 사회 소식 등등 생활 전반에 대한 글귀 등을 게시하면 그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공감을 산 게시물은 다른 이들의 뉴스피드에 노출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게시물에 태그하여 불러들이는 행위로 쉽고 빠르게 전파되면서 많게는 수십만개의 공감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공감하고 있던 행동방식들이 어느새 나의 삶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고, 나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 있었다. 그 계기는 친한 친구와 그냥 친구에 대해 수많은 좋아요를 받은 게시물이었다. 게시물은 '친한' 친구와 '그냥' 친구를 대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행동들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그냥 친구에겐 수다스럽고, 친절하고, 살갑게 행동하는 반면 친한 친구들에겐 편한 만큼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막 대한다는 것을 동영상으로 재치 있게 그려내면서 나 역시 좋아요를 누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었기 때문일까, 어느새 그 내용은 공감을 넘어 친구라는 존재에 대한 나의 행동 방식을 규정하게 되었다.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친구와 '친한' 친구라는 프레임에 갇혀 상대를 대하고 행동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 지난 7월, 친구들과의 유럽 여행에서 갑작스레 폭동이 일어나 난생 처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위험한 사건을 겪은 후, 무뚝뚝하고 무심하고 불친절하던 사이를 '친한 친구'라고 포장하던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따듯한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서로를 다독이는 친구들은 친절하고 살가운 '그냥' 친구로 상징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친한' 친구였고, 어쩌면 전보다 더 돈독해진 사이였다. 이렇게 내가 갇혀있던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고 보니 수다스럽고, 친절하고, 살갑게 대하던 친구들도 '그냥 친구'가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공감, 그리고 그 공감이 만드는 행동 방식은 친구 관계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생각해보면 '여행은 이러해야한다', '이럴 때 싫은 사람 유형', '이렇게 입는 사람이 좋다.' 등등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틀에 나를 맞추려고 했던 것들이 적지 않다. 결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행동 방식에 따르는 삶은 다른 이들의 질타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삶이며, 다른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삶이기에 나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나는 어느새 스스로의 행동에 새로운 제약을 만들어 냈다. 수많은 콘텐츠가 그려내는 여성상, 남성상, 바람직한 인간상에도 모자라 이제는 사소한 생활 방식 곳곳에 틀을 만들어 우리 스스로를 가둬왔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나의 의견도 그것에 공감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제약이 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가지는 이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만평

강주영 만평기자 juyeong.1128@gmail.com

여론광장

외로움, 인간의 또 다른 가능성

나는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다. 대학에 와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보면 처음 느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급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매일 부대끼며 살아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수능, 대학진학이라는 목표를 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목표가 내 정신을 가득 채워서인지 이상하리 만치 허전함이나 외로움에 둔감했었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백지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은 나로 하여금 외로움에 쌓이게 하였고, 어느 한 기간 동안은 친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내면의 고립감으로 허전하고 괴롭기만 했다. 그러고 생각해보면 사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에게 꽤 치명적인 타격이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의 포교 방법 또한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하는 대학생, 즉 가족과 친구 없이 새로운 환경에서 외로운 것 같은 사람을 노린다고 하니, 외로움과 고독이 얼마나 인간을 유약하게 만드는 것인가! 썩은 동아줄인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의 타인의 온기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래도 이 힘든 시간이 허투루 낭비된 것은 아닌지, 나는 나름 깨달음을 얻었다. 영어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No man is an island". 그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 된다. 우리 모두 큰 대륙의, 큰 전체의 부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 영화에서는 이 구절을 뒤집어 "Every man is an island"라고 했다. 인간은 모두 섬이라는 소리다. 내 섬을 떠나 다른 사람과 바다 중간에서, 아니면 그 사람의 섬에서 만나서 잠시 지내다 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누구나 자기 섬으로 돌아와야 하고, 편하게 쉴 곳은 오직 내 섬뿐이다.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다른 사람과 잠시 함께 할 수도 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믿고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바다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위태로운 것일 수밖에 없고,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내 섬을 편한 곳으로 생각하고 꾸며서 내 섬이 멋져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다가올 것이다.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헤어지게 되더라도, 난 내 섬에서 편안하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는 않는다. 한 때는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싫어했던 내가 지금은 혼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도 먹고 영화도 본다. 혹시나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예전의 나처럼 인간관계에 조급해지고 집착하고 있다면, 모든 인간은 섬이라는 저 말을 들려주고 싶다. 낭만주의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 마저 최고의 로맨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박우정(경제·15)

금주의 책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사사키 후미오 지음, 김윤경 옮김.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5.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중요한 것을 위해 그 외의 것을 줄이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있는 저자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물건을 줄이고 버리는 것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저자는 미니멀리즘의 탄생과 넘쳐나는 물건에 둘러싸여 사는 현대인들의 왜곡된 심리를 짚으며 물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삶의 변화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감사, 행복,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는지 말해줍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믿는 당신에게 최소의 삶을 권한다'는 광고 문구처럼 물건도 정보도 넘쳐나는 시대에 소유를 줄이는 단순한 삶이 이화인 여러분을 조금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화여대 중앙도서관-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홀 인기도서 / 4층 일반 158.1 좌815ㅂ]

※2016학년도 2학기부터 '금주의 책'은 "도서관 BEST 대출도서"에서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0803~0901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아리랑 : 趙廷來 大河小說 제2판	조정래	해냄	2004
2	아도니스	남혜인	동아	2015
3	먼나라 이웃나라 [전면개정판]	이원복	김영사	2012-2013
4	구르미 그린 달빛	윤이수	열림원	2015
5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Rowling, J. K.	문학수첩	1999
6	토지	박경리	나남	2002
7	궁에는 개꽃이 산다	윤태루	신영미디어	2007
8	해리포터와 불의 잔	Rowling, J. K.	문학수첩	2000
9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Rowling, J. K.	문학수첩	2007
10	폴라리스 랩소디	이영도	황금가지	2000-2001